

THE PIANO

No.356 2011. 11 The Best Publication in Piano Music 피아노음악



최희연

IBK 챔버홀 개관 페스티벌, 클래식 스타 시리즈 무대에서

특집 · 최근 6년간 음대 입시곡 Top 10 집중분석〈5〉쇼팽 소나타 제3번 1·4악장
한양대·경희대 3회 출제

토크토크 _ 피아니스트 김주미와 문성혜 · 배은경 학생

자상공개레슨 _ J. S. 바흐의 '평균율 제1권 No.22·23·24, BWV 867·868·869'



9 771227 241002

삶이 아름다우면 음악이 아름답다

최희연



STEINWAY &

청조하고 지적인 그녀의 모습은 단순히 외적인 미를 넘어서 그녀의 피아노 음색과 참 잘 어울리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베토벤의 강인함도 쇼팽의 우아함도 모차르트의 순수함도 그녀는 마치 그 작곡가의 속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조용히 다가가 들여시 우리의 마음을 쓰다듬는다. 그동안 많은 작곡가의 마음을 연주 속에 담아 깊은 여운을 남겼던 그녀가 11월 2일, 이번에는 인상주의의 꽃을 피웠던 드뷔시와 따뜻한 감성의 라흐마니노프, 그리고 새로운 소리와 감각으로 주목받는 현대작곡가 진은숙의 작품으로 우리를 찾아온다.

Part 1. 나를 찾아 떠난 여정

“얼마전 바이올리ニ스트 이미경 선생님과의 첫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연주회를 마치고 12월 15일 두오 연주회 두 번째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곡도 모두 각각 다른 얼굴이 있는데, 바이올린 소나타 역시 열 곡 모두가 어떻게 그리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역시 베토벤은 ‘베토벤’이라는 명사로 밖에는 함축될 수 없는 그런 작곡가인 것 같아요.”

그녀는 음악가에게 가장 중요한 청각을 잃은 베토벤이 그 고독과 고통을 극복하고 내면의 소리를 오직 음악 안에 표현해낸 점은 정말 위대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가슴이 아프다고 말한다.

“귀를 잃고 그는 외형적으로는 점점 더 괴팍하고 거친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만 내면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순수함, 따뜻하고 꿈꾸듯 아름다운 것들이 꿈틀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귀에는 지저귀는 새소리가 들리고 시냇물이 흐를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내면 속에 순수한 소년의 마음이 숨어 있었기에, 베토벤은 극에서 극을 내달리며 낭만의 물꼬는 여는 개혁자가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최희연에게 베토벤은 위대한 음악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녀가 음악계에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바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연주 시리즈(2002년~2005년)를 시작하면서였다.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스타 피아니스트가 아니었지만 그녀는 지금까지 음악계에 커다란 의미를 남긴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라는 거대한 산을 오르는 긴 여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여정은 그녀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음악가들에게 감동과 도전의 메시지를 던져 주었다.

“언젠가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을 연주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기는 했지만 막상 처음에 그런 연주회가 기획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솔직히 그 엄청난 일이 ‘내게 벌써?’라는 생각이 들었어요(웃음). 많이 고민했었는데, 그때 스승님이신 레이 그라프 교수님께서 ‘지금 안하면 언제 하겠느냐’며 도전할 용기를 주셨습니다.”

4년여에 걸쳐 지속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는 최희연의 음악 인생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중요한 피 포인트가 되었다. 그녀는 연주를 하는 동안 결혼과 출산이라는 변화를 겪었고 그 뒤 다시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를 이어가며 고단했지만 행복한 여정의 끝을 마무리했다. 베토벤을 마음에 품고 혼자 걷던 길 위에서 가족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얻게 된 것이다.

“내 가정을 꾸리고 난 뒤의 베토벤 연주 여정은 저를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의 많은 연주 중 지금도 제게 특별한 의미로 남아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음악은 제게 나를 살게 하는, 안하면 죽을 것 같고 잘 보이지 않지만 늘 함께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반면 피아노는 언제나 제 곁에 머물러 있는 편안한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전 피아노 악기 자체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흰 건반과 검정 건반이 너무 멋있었고 근사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 신체 일부인 것처럼 제 삶의 모든 과정의 순간을 함께 했고 또 앞으로의 삶도 함께 할 거예요. 피아노는 제 삶의 모든 순간마다 말없이 제 곁에서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독이고 성찰하게 했던 속깊은 친구였으니까요.”

Part 2. 마음의 벽이 무너지다

그녀는 어린 시절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었다. 한참 감수성이 예민했던 중학교 2학년 때였고, 그때의 상실감은 이후 그녀가 음악을 하는 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아버지를 잃은 후에는 책을 보면서 ‘아버지’라는 글자만 봐도 그냥 넘겨버릴 만큼 마음의 상처에 예민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말, 장소 같은 것도 무의식적으로 피했구요. 아마도 상처난 내 마음이 그런 기억들로 인해 더 아프게 헤집어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을 숨기고 아프면 그냥 아픈 대로 피아노로 노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팅게일처럼 말이에요.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런 상처가 나 만의 슬픔이었다는 생각이 더 컸을지 모르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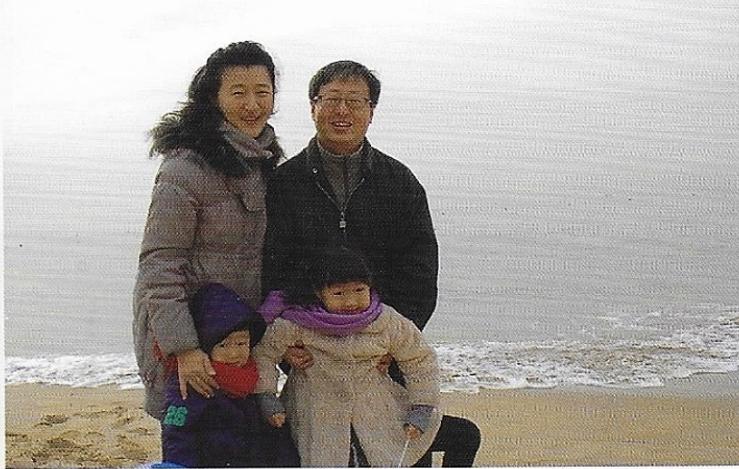
최희연에게 음악은 자신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었다. 어쩌면 당시의 상처들을 이렇게 편안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이미 그 아픔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지금의 시간에서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되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이 나만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이죠. 모두가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가슴 속에 각자의 아픔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슬픔과 상처가 결코 늘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연주도 더 솔직해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아버지의 부재는 상실감과 함께 피아노를 하게 될지 못하게 될지에 대한 그녀의 꿈을 좌지우지할 만큼 큰 고통이었다. 부유했던



이름다운 인연을 맺은 스승 고중원 교수와 함께



해맑은 웃음이 서로 닮은 사랑하는 가족과의 행복한 한때

가정형편이 아니었기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녀는 당연히 피아노를 그만두게 될 거라 생각했다고 한다.

“그때 제 형편을 아시고 도와주셨던 분이 고중원 선생님이세요. 평생 갚을 수도 없는 은인같은 분이시지요. 당시 저는 선생님을 위해서 피아노를 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선생님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셨더군요. 그렇게 음악으로 맺어진 인연은 제가 세상을 더욱 깊고 넓게 바라보게 했던 원동력이었고, 위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늘 존재하는 사랑·슬픔·소통·행복, 이런 것들은 결국 음악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 저는 늘 연주로 삶을 노래하고 있는 셈이지요. 음악이란 그런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만지고 위로해 주는 것.”

“진은숙 선생님의 피아노 에튀드 작품은 드뷔시 작품의 분위기나 작곡기법에서 영감을 받았고 첫 곡으로 드뷔시 작품을 연주하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분위기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선곡했습니다. 독일 유학 때 알게 된 은숙이 언니는 피아노에 대한 향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시대를 함께 공유했던 추억들이 있었기에 그 작품들이 제게도 너무나 공감이 잘되었구요. 지금까지 쓴 6개의 에튀드는 새로운 하모니와 소리를 추구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듣고 찾게 합니다. 많은 진통 끝에 다시 고뇌하며 새롭게 세상에 나온 작곡가 진은숙의 에튀드를 이날 청중도 함께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 기대합니다. 앞서 연주하는 드뷔시의 에튀드는 사뭇 모던한 분위기로 추상적인 세계를 그려내고 있지요. 새로운 소리의 매력을 한층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드뷔시 역시 개혁가였고 음악으로 마치 시처럼 말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악적 여백과 여운이 깊은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연주하는 라흐마니노프는 가장 피아니스틱한 작곡가로 그의 작품들은 풍부한 음악성과 서정적인 선율이 돋보입니다. 이날 무대가 많이 기대됩니다.”

1999년 서울대 임용과 함께 귀국한 최희연은 올해로 강단에 선 지 10년이 훌쩍 넘었다. 그녀는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대학에 피아노를 전공하기 위해 온 이상 ‘훌륭한 솔리스트’의 꿈을 꾸라고 가르친다.

“처음 귀국했을 때는 몇 모르고 열정을 다 뿐이내면서 힘주고 가르쳤어요(웃음). 3시간을 그렇게 가르치고 나면 진이 모두 빠질 정도였으니까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친 지 10년이 넘었는데,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제가 처음 강단에 섰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점은 ‘진정한 가르침은 당장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 것 보다는 나무에 물을 주는 것처럼 비바람을 견디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뿌리 내리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기다림의

Part 3. 지혜로운 피아니스트로 가는 길

최희연은 6세에 인천시향과 협연으로 데뷔, 이화경향·한국·중앙·동아음악콩쿠르 등을 모두 석권했고, 비오티 국제 콩쿠르·부조니 국제 콩쿠르·윌리엄 카펠 국제 콩쿠르·에피날 국제 콩쿠르·클라라 하스킬 국제 콩쿠르·마리아 칼라스 국제 콩쿠르 등에서도 상위 입상하며 국제 무대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태리·스웨덴·오스트리아·호주·스위스·독일·일본 미국 등지에 초청 연주회를 가졌고 특히 2002년~2005년 금호아트홀 초청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시리즈를 시작으로 국내에서 100회가 넘는 공연과 협연, 실내악 활동을 해왔다. 오는 11월 2일 독주회에서는 드뷔시의 ‘피아노를 위한 12개의 연습곡’, 진은숙의 ‘피아노 연습곡 제1·2·3·6번’, 라흐마니노프의 ‘환상적 소품 중 프렐류드 Op.3-2’, 라흐마니노프의 ‘프렐류드 Op.23 제2번·제4번·제5번’으로 청중을 만난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물론 현실적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훈련도 필요하고 어떤 성과를 이뤄내는 것도 중요하기에 어느 쪽이 모두 옳다고 단정짓기는 힘들겠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 조화를 이뤄나가는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보람이 크지만 연주를 준비하며, 가정을 돌보며 늘 시간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역시 함께 하는 파트너의 도움과 이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남편이 그런 면에서 오픈 마인드를 갖고 배려해 주어서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하영이와 태영이 두 아이들도 엄마를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피아노’에 대해 애증의 마음을 가지면서도(웃음) 저를 많이 이해해 주어서 기특하구요. 무엇보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봐주시며 늘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지요. 어머니는 늘 제 곁에 묵묵히 함께하는 그런 존재인데, 제가 막상 엄마가 돼서야 제 어머니의 사랑과 애틋한 마음을 더 이해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웃음).”

Part 4. 다시 자유를 노래하다

“제 음악에 큰 영향을 주셨던 헬비히 교수님을 만나고 음악 안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음악으로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두껍게 내 마음을 싸고 있는 어떤 막을 깨야 하는 두려움이었고 도전이었지요. 하지만 그 막을 깨지 않고는 누군가와 공감할 수 있는 연주를 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것은 제 마음을 설레게 했던 또 다른 세계, 자유였어요. 저 또한 상처받고 고통 받는 것을 두려워했고 피하고 싶었지만 이제 그것 또한 인생의 한 그림이라는 것을 알기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지금 제게 주어진 행복이 감사하고 소중한 것이겠지요.”

그녀는 언젠가 딸 하영이에게 예쁜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그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

“어린 꼬마가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는 인생의 과정을 잔잔하게 그리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할머니도 결국은 여느 엄마의 사랑스러운 딸이었다는 것을 손녀에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에서 코끝이 찡했어요. 그리고 저도 삶의 겸허함을 알고 진정한 사랑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할머니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스승이셨던 세복 선생님이 백발의 모습으로 리스트의 소나타를 연주하는 것을 들으면서 지혜로운 백발의 노인이 된 모습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돌아보면 그동안 저는 지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삶은 좀더 현명하기를, 음악으로 아름다운 삶을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피아니스트·아내·딸·엄마·선생님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음악을 삶’에 비유한다. 그래서 통찰력 있는 음악은 우리를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한다. 음악은 단순히 음표의 집합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들을 응축시킨 생명같은 것이다.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이 음악만이 아니듯이, 영화를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미술작품을 보면서,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사람을 만나면서 삶은 하나 하나가 감동이고 예술품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음악은 결코 연주회 장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투명한 햇살 속에, 향기로운 바람 속에, 반짝이는 별 속에, 길섶의 들국화 속에 음악은 존재한다. 그리고 누군가의 눈물과 웃음 속에, 만남과 이별 속에,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 속에 늘 살아 숨쉬고 있다. 피아니스트 최희연이 음악으로 지금 우리에게 그 말을 걸어 오고 있다.

글·국자연 기자 | 사진·윤윤수 기자
표지사진·김도형 작가



IBK 챔버홀 개관 페스티벌 기념 음악회

클래식 스타 시리즈 – 최희연 피아노 독주회

일시 11월 2일 오후 8시

장소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

곡목 드뷔시의 ‘피아노를 위한 12개의 연습곡’ 외